

##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Ⅷ 기쁨의 사람, 고난을 이기다.

### 1. 기쁨이 중요한 시대

[디모데후서 3:1]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 때는 어려움의 때, 고통이 증가하는 때라는 것이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다. 기쁨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성경에 보면 기쁨의 기름은 가장 최고의 기름으로 묘사된다.

[시편 45: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왕에게 부여되는 기름이다. 왕은 최고의 정점을 의미한다. 가장 의미있는 존재이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동료들과 비교불가 한 왕의 존재됨이 '기쁨'에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 보시고 '심히 좋았다' (토브-good) 하시며 만족해 하셨다. 그 만족감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은 창조의 힘이며 원천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과 사역으로, 의무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다. 기뻐함으로 창조하셨다. 즐거워 함으로 일하셨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안에는 창조주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어느 것 하나 의미없는 피조물이 없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원동력이 바로 기쁨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허무함'이다. '허무함'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올라가서 성취하면 다 이루었을 것 같은데 더 큰 벽을 발견하고 좌절한다. 정점에 올라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상태가 '허무함'이다. '허무함', '무로함', '지루함'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된다. 우울증과 같은 불안함이 현대인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이유, 즉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2. 기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셨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의 존재'이다.

#### (1) 기쁨은 존재적인 것이다.

꾸밀 수 없다. 이것은 가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바라 보시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존재적 사랑이 바로 기쁨이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온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이다.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본질 또한 사랑, 기쁨이라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2) 기쁨은 만들거나 조작할 수 없다.

기쁨은 꾸며낼 수 없다. 꾸민 웃음이 아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일방적 선포이다.

## (3) '기쁜 소식인 복음을 통해 구원 받았다'는 확증의 결과가 기쁨이다.

성경을 보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는 기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결정적 열쇠이다. 소유형 사람에서 존재적 사람이 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

ㄱ) **삭개오** :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과감히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자신을 찾은 기쁨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와 같은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누가복음 19:8-9]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 선포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삭개오의 존재적 의미를 찾아준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이 구원이며 복음이다.

ㄴ) **우물가의 여인** :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부끄러워 나갈 수 없었던 마을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게 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기쁨의 소식을 온 동네에 전했다. 기쁨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다. 역지로 전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28-30]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와 사람은 그 여인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의 현실들이다.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소유한 여인은 현실적 두려움을 이겼다. 그 동네에 부흥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실재적 힘이다.

## 3. 기쁨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기쁨은 발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다. 가장 가치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마음이 기쁨이다. 그 사람의 반응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치있는 보화를 샀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원함으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기쁨이다. 소유형 사람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한 존재적 사람의 힘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악세사리 장식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조품이 아니라 실재이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즐거워야 헌신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을 이긴 사람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자유한 사람이다. 자발적 헌신이 능력이다.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움켜질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 기쁨이 두려움을 이긴다.

[시편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전쟁의 날, 권능의 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새벽 이슬같은 청년들은 '즐거움'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아야 한다. 이제 그 즐거움으로 일어나자.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다.

내 안에 이미 그 즐거움의 기름부음이 있다. 하늘의 즐거움이, 가장 존귀한 왕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 내 안에 있다. 그 기쁨의 헌신이 오늘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다.